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 유형에 관한 연구

황문선* · 조희숙

*강원도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 강원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연구배경 :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과 같은 건강위험행태가 증가하고, 그 시작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건강위험행태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며, 자칫 폭력이나 비행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흡연, 음주, 약물복용, 자살관념, 안전벨트 미사용등과 같은 건강위험행태는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누적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위험행태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관련성 있는 건강위험행태에 대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 유형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행해진 청소년의 보건의식행태 조사를 이용한 것으로, 건강위험행태는 흡연, 음주, 자살관념, 비만, 신체비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각 건강위험행태 여부를 파악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6개의 항목 중 서로 관련성이 건강위험행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건강위험행태를 조합하여 건강위험행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건강위험행태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분석결과 남녀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위험행태는 흡연, 자살관념, 신체비활동, 비만이었으며,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 비만의 위험행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가 청소년의 흡연, 음주, 자살관념, 비만의 행태에 유의 영향이 있었고, 흡연, 음주, 신체비활동과 같은 건강위험행태는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흡연, 음주, 자살관념, 비만, 신체 비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흡연, 음주, 자살관념 세 항목이 관련성이 높음을 파악하였다. 세 가지의 건강위험행태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군부터 세 가지 모두를 행하는 군까지 4개의 군으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위험행태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가정이 불안한 상태이거나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에게서 위험행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어떤 건강위험행태도 하지 않는 군과 흡연, 음주, 자살관념 세 가지 행태를 모두 하는 군으로 나누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5.6배,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상태인 가정의 청소년이 9.8배 건강위험행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